

건설업 ESG 경영 실태와 대응 방안

2022.5

최은정

■ 서론	4
■ 국내·외 ESG 평가지표 동향	7
■ 건설업 ESG 경영 실태 조사	11
■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지표 도출	21
■ 향후 대응 방안	33

-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비(非)재무적 요소인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현재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 방법(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등)이 다소 상이하며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최근 정부에서 기관별 ESG 평가 기준의 상이함을 보완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2021.12)함.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지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건설업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함. 또한,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련된 필요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설업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건설업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상위 5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7.5%를 차지함.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건설업체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5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별도의 준비 부재'라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차지함.
- 본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K-ESG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평가기관들의 지표를 추가 및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함.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중요 ESG 지표 도출 및 현재 건설업체 수준 간의 갭(GAP) 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ESG의 전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건설업체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비교해 볼 때 ESG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중 지배구조 분야는 환경, 사회 분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준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환경 법/규제 관련 숙지'의 준비가 필요함.
 - 다음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종업원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규인력 유입 노력', '협력사 ESG 경영 지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의 준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윤리경영 이행',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다양성, 전문성 등 반영)', '감사기구 전문성 확보'의 준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건설업 ESG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설업체 스스로 규모별 대응 방안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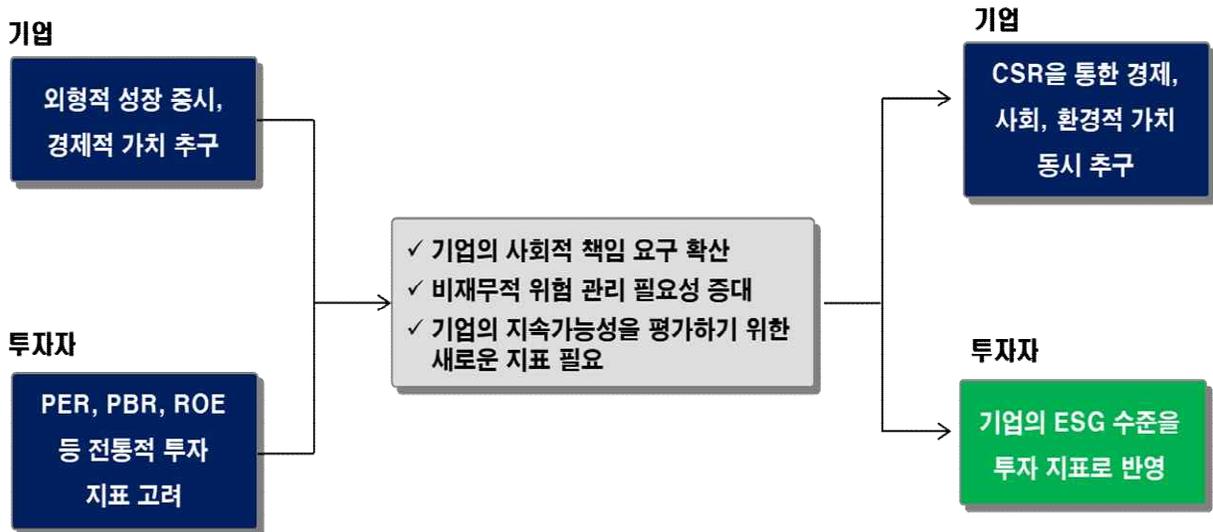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Covid-19)는 세계보건기구(WTO)의 팬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 선언과 함께 그동안 기업이 운영해오던 방식에도 변화를 야기함. 즉, 기업의 불확실성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비(非)재무적 요소인 ESG(Environment : 환경, Social : 사회, Governance : 지배구조)¹⁾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기업이 과거에는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그림 1〉 ESG 개념의 등장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2020), 「ESG와 기업의 장기적 성장」.

1) ESG의 세부 구성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자료 : 삼정KPMG(Vol.74-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① Environment(환경)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등
- ② Social(사회) : 고객만족,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인권, 성별 및 근로자 안전, 지역사회 관계, 공급망 관리 등
- ③ Governance(지배구조)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기업윤리, 뇌물 및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로비 및 정치 기부, 공정경쟁 등

-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평가에 있어 전통적인 투자 지표(PER, PBR, ROE)에서 벗어나 기업의 ESG 수준을 투자 지표로 반영하기 시작함.
- 즉, 코로나19라는 기존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확산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임.

❖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ESG 경영은 건설업을 포함한 전(全) 산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책임 투자를 원칙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 강화, 기업 평가 시 ESG 요소 반영, 고객의 ESG 요구 증대 등 기업의 가치 평가를 위해 ESG의 활용 증대를 요구하고 있음.

〈그림 2〉 기업경영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



자료 : 삼정KPMG(Vol.74-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이때,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별로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 방법(항목별 배점 및 가중치 등)이 다소 상이하며 자료에 대한 공개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일부 홈페이지에 항목 공시가 되어 있지만 세부 구성 요인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 공기업 및 민간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ESG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미한 상태임. 이들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 산업별 표준화된 지표의 공시가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정부에서 기관별 ESG 평가 기준의 상이함을 보완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2021.12)함.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지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임.

- 즉, 건설업과 관련하여 업체 규모별로 어떠한 항목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부분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음.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K-ESG를 기반으로 ① 향후 정부의 건설업체에 맞는 ESG 지표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② 건설업체의 ESG 경영을 위한 방향성 제시의 측면에서 기여하고자 함.

- 단, 본 연구의 목적은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항목별 점수 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 해설서, ESG 등급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하지 않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국내·외 ESG평가기관의 평가지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업과 관련해 평가지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하고자 함.
- 둘째, 건설업 ESG 경영 현황 및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ESG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셋째,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ESG 지표 도출 및 도출된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간의 갭(GAP)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건설업체 대응 방안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국내·외 ESG 평가지표 동향

■ ESG의 등장이 전 세계적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기업의 중요 가치로 부각됨. 이에 기업의 경영 시스템 전반에서 ESG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한 니즈(needs)가 커지면서 ESG를 자문/컨설팅/평가하는 서비스 기관이 등장함.²⁾

- 현재 전 세계 600여개 이상의 서비스 기관이 ESG 평가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Sustainability, 2018). 예를 들어, 글로벌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에서는 ESG 평가 결과를 기업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이들 기관은 기업의 ESG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수행을 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지표를 최신화하고 있음. 평가기관은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함으로써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법들을 고도화하고 있음. 이때 평가 결과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신용 평가사 등에 제공됨.
- 현재 <표 1>과 같이 국내·외 ESG 평가기관은 자체 개발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ESG 평가를 하고 있음. 이때, 기관마다 중요시 하는 평가 요소 및 가중치에 다소 차이가 있음.

<표 1>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특징
해외	MSCI ESG Leaders 지수	ESG 영역별 10개 주제, 35개 핵심 이슈를 평가해 AAA~CCC의 7개 등급 부여, 거버넌스 평가에 가중치 제공
	DJSI ESG 지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환경·사회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경영 지속 가능성을 분석
	FTSE4Good 지수	담배, 무기, 석탄 등 일부 산업은 피평가 기업에서 제외,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해 분기별로 지수에 편입된 기업을 발표
	Sustainalytics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ESG 리스크가 기업의 재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평가 결과는 0~50 사이 점수와 리스크 등급으로 표시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전 세계 9,600여개 기업의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 경영 공시 정보를 분석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2,000명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의 거버넌스와 책임 투자에 관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회사별 900개 이상의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ESG 위험 회피 시스템, 기업가치 훼손 이슈 등 진단
	서스틴베스트	자체 개발한 평가 모델 ESGValue를 활용해 국내 상장사의 ESG 관리 수준 평가
	대신경제연구소	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가지 부문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 후 자체 분석 모형으로 평가

자료 : 매경ECONOMY(2021.4.21.~4.27), "투자자 눈높이서 보라... 3대 지수 중요".

2) 본 문단(세부 문단 포함)의 내용은 '관계부처합동(2021. 12), K-ESG 가이드라인 v1.0'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1. 국외 ESG 평가기관의 주요 지표

ESG 평가와 관련하여 국외의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지표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 먼저, SASB는 ① 환경, ② 사회자본, ③ 인적자본, ④ 비즈니스 모델/이노베이션, ⑤ 리더십/지배구조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크게 26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SASB는 산업별로 정해진 중요 이슈 관련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MSCI는 ① 환경, ② 인권과 지역사회, ③ 노동권과 공급망, ④ 소비자, ⑤ 지배구조의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크게 23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MSCI는 최대 규모의 ESG 평가기관으로 AAA, AA, A, BBB, BB, B, CCC의 7개 등급으로 구분해 AAA와 AA 등급은 리더 그룹, A, B, BB 등급은 평균 그룹, 그 외 등급은 느림보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2> 국외 ESG 평가기관의 주요 지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구분	세부 지표	구분	세부 지표
환경	온실가스(GHG) 배출	환경	생물 다양성& 토지 이용
	대기질		유독성 배출 & 폐기물
	에너지관리		에너지 & 기후 변화
	물/폐수관리		폐수관리
	폐기물/유해물질 관리		폐기물관리
	생물 다양성 영향		공급망관리
사회자본	인권/지역사회관계	인권과 지역사회	지역사회 영향
	고객 개인 정보		인권
	데이터 보안		지역주민 관심
	접속/적정가격	노동권과 공급망	노동력 관리
	제품품질/안전		건강과 안전
	소비자 복리		집단 교섭과 노동조합
인적자본	판매 관행/제품표시	인권 차별과 노동력 다양성	
	노동 관행	아동 노동력	
	종업원 안전/위생	공급망 노동 표준	
	종업원 참여/다양성	제품 안전과 품질	
비즈니스 모델/이노베이션	제품디자인/라이프 사이클 관리	소비자	반경쟁 관행
	비즈니스 모델 회복력		고객과의 관계
	공급체인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재료조달/효율성		마케팅 및 광고
	기후변화 물리적 영향		뇌물 및 사기
리더십/지배구조	사업윤리	지배구조	지배구조
	경쟁력 행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자
	법/규제환경관리		
	중대사고 위험관리		
	시스템적 리스크관리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2. 국내 ESG 평가기관의 주요 지표

❖ 국내의 경우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 지표를 비롯해 그 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및 컨설팅 기관의 평가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산업자원부는 2021년 12월 K-ESG 지표를 발표함.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ESG 경영 요소 및 평가기관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평가항목 제시를 위해 국내외 기관의 평가지표 및 공시 기준 등을 분석하여 ① 정보공시, ② 환경, ③ 사회, ④ 지배구조의 4개 분야에서 61개 세부 지표를 제시함.
- 다음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는 ① 환경, ② 사회, ③ 지배구조의 3개 분야에서 11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총 18개 대분류의 265개의 핵심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상세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기업만 확인이 가능함.
- 마지막으로, 국내 ESG 평가 관련하여 대표적 컨설팅 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지표를 살펴보면, ① 환경, ② 사회, ③ 지배구조의 3개 분야에서 38개의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이때, ① 각 지표가 반영하는 핵심 ESG 이슈에 대한 산업별 리스크 노출도 수준과 ② 핵심 ESG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③ 기업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표 간 상대적 중요성(materiality)을 근거로 가중치를 결정하고 있음.³⁾

〈표 3〉 국내 ESG 평가기관의 주요 지표

기관	구분	세부 지표		
산업 자원부	정보공시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범위	ESG 정보공시 주기
		ESG 핵심 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	환경경영 목표 수립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Scope1,2)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사회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 (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 사항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 참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지배구조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3) 서스틴베스트 기업 ESG 분석보고서(2021)

기관	구분	세부 지표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환경	환경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사회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지배구조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정보공개				
서스틴 베스트	환경	친환경 혁신역량	환경성 개선성과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공정관리	온실가스	친환경 공급망 관리
		그린마케팅		
	사회	근로조건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사관계 관리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공급사슬관리	고객정보 보호	소비자 만족 경영
		품질관리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관계		
	지배구조	경영권 보호장치	주주총회	주주지치 환원
		공정공시	공시위반	회계 투명성
		이사의 선임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감사 및 감사위원회	이사 보수의 적정성	보상위원회
		관계사 우발 채무	관계사 거래	내부거래 위반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지속가능경영 보고	윤리경영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3. 시사점

- 현재 ESG평가기관의 지표를 종합해 보면 기관마다 세부 지표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별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비슷한 흐름을 보임.
- 그러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지표별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함. 즉, 기관별로 산업별, 지표별 가중치 등을 설정하고 있지만 평가받는 기관에게만 공개하고 있어 일반 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건설업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건설업체인 상황에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영상 애로사항이 존재함. 따라서 건설업체의 규모별로 ESG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부분이 취약한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Ⅲ 건설업 ESG 경영 실태 조사

1. 설문조사의 실시

(1) 설문조사의 표본

■ 건설업 ESG 경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ESG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총 183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발주기관이 18.6%, 종합건설업체가 64.5%, ESG평가기관이 16.9%를 차지함.

- 발주기관은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중소기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고려해 종합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함. 총 118부가 회수되었는데 이 중 1~50위 건설업체는 72.9%, 51~100위 이내 건설업체는 27.1%를 차지함.

〈표 4〉 설문조사 응답자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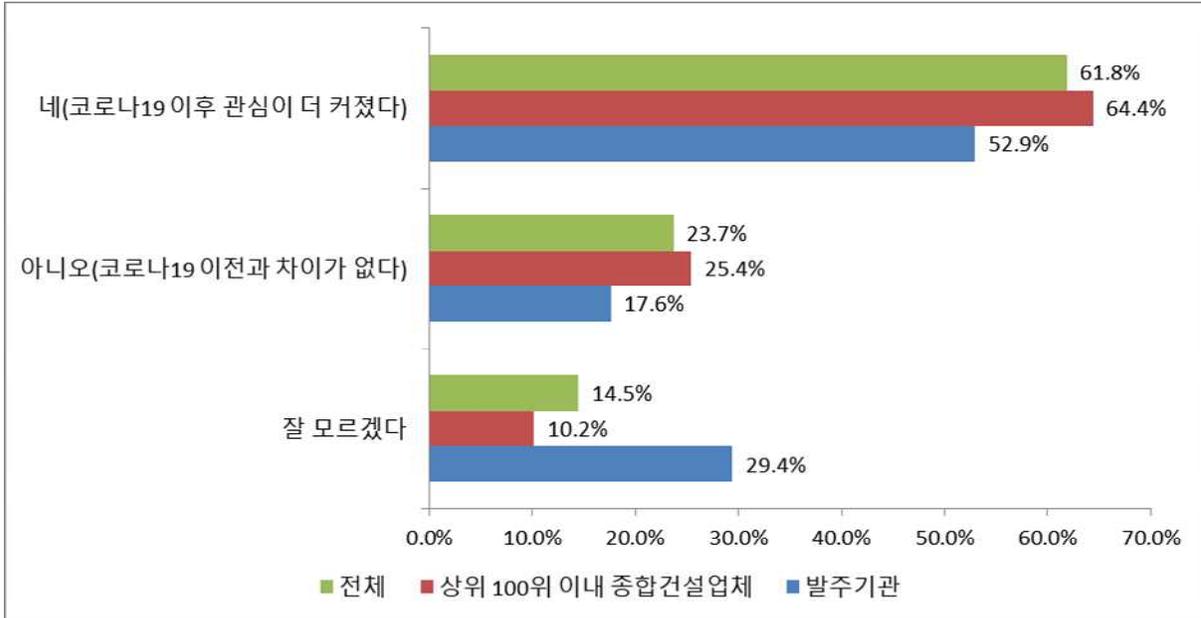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발주기관	34	18.6%
종합건설업체	118	64.5%
1~50위 건설업체	86	47.0%
51~100위 건설업체	32	17.5%
ESG평가기관	31	16.9%
전체	183	100.0%

(2) 건설업 ESG 경영 중요성 인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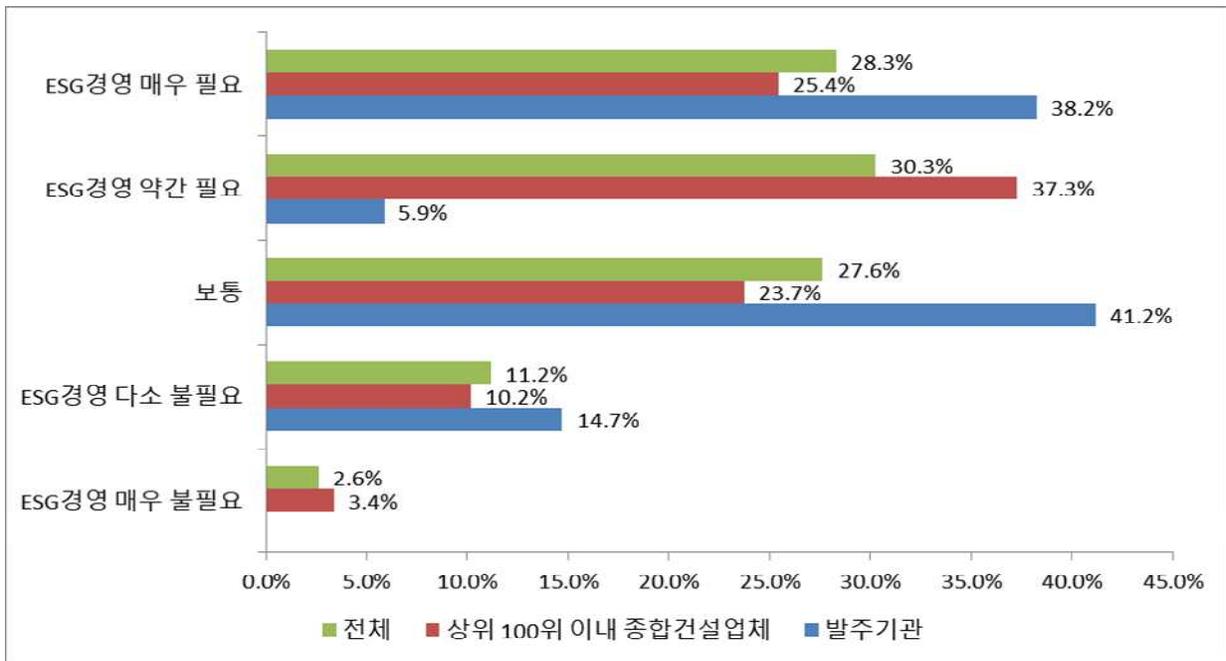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건설업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그렇다’고 답함. 특히,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64.4%로 발주기관이 52.9%라 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종합건설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응답이 50위 이내 건설업체에서 76.7%로 나타나 51~100위 건설업체의 31.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즉, 대형건설업체를 위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 코로나19 이후 건설업 ESG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여부



〈그림 4〉 건설업 ESG 경영의 필요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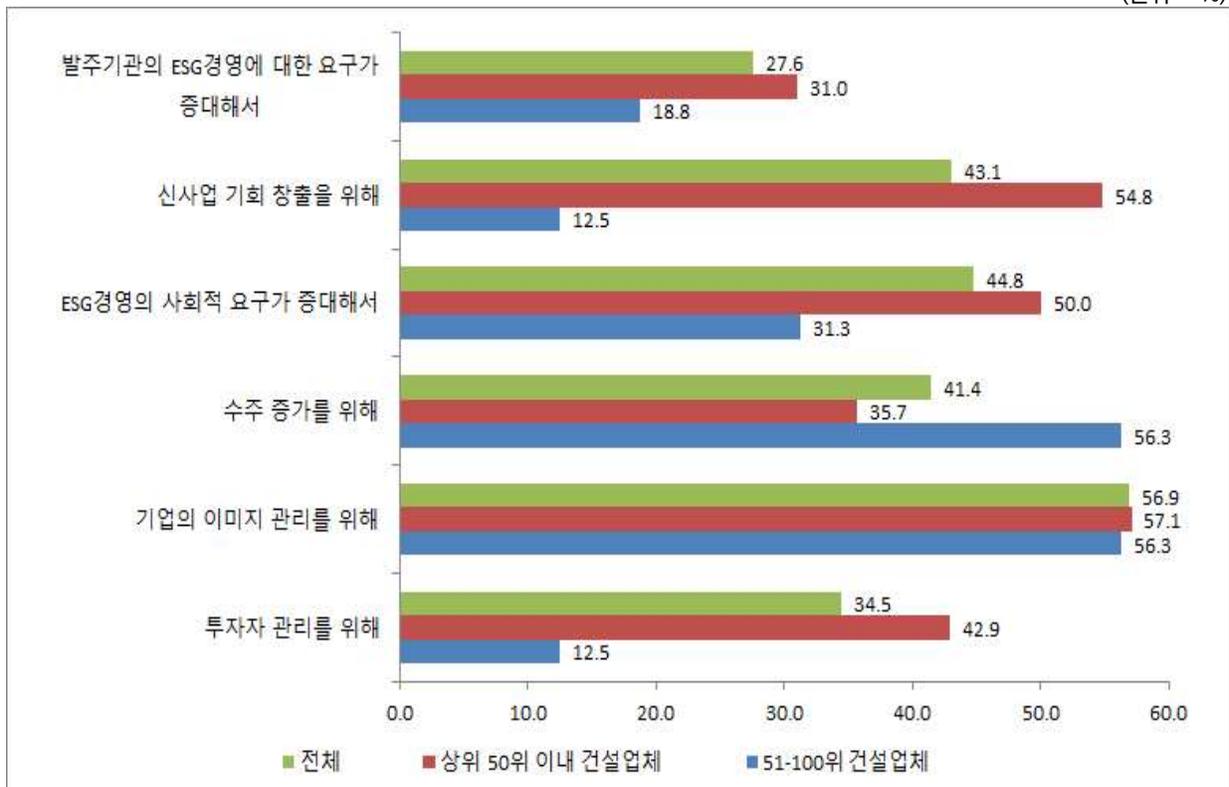


❖ 그렇다면, 건설업 ESG 경영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8.3%가 ‘매우 필요’, 30.3%가 ‘약간 필요’라고 답해 60% 가까이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발주기관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8.2%로 나타나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체 규모별로도 50위 이내 건설업체는 ESG 경영이 중요하다(매우 중요+약간 중요)는 의견이 72.1%로 51~100위 건설업체의 37.6%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그림 5〉 건설업 ESG 경영 필요 이유(필요하다 응답한 경우)

(단위 : %)



주 : 중복응답.

❖ 건설업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56.9%로 1순위, ‘ESG 경영의 사회적 요구 증대’가 44.8%로 2순위,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서’가 43.1%로 3순위를 차지함(〈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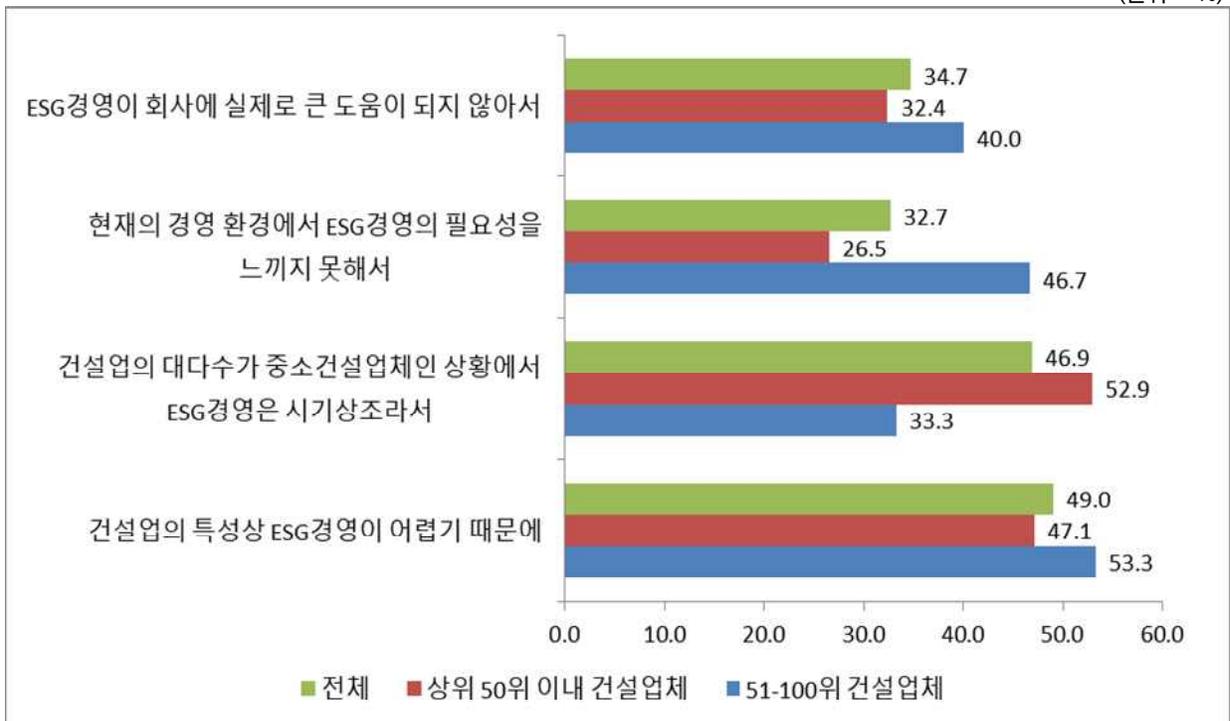
-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위 이내 건설업체의 경우 ‘기업의 이미지 관리’, ‘신사업 기회 창출’, ‘ESG 경영의 사회적 요구 증대’를 ESG 경영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뽑음. 반면, 51~100위 이내 건설업체는 ‘기업의 이미지 관리’, ‘수주 증가 목적’, ‘ESG 경영의 사회적 요구 증대’를 ESG 경영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뽑음.

■ 건설업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건설업의 특성상 ESG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전체의 49%로 1순위, ‘건설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ESG 경영은 시기상조’가 46.9%로 2순위, ‘ESG 경영이 회사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34.7%로 3순위를 차지함(〈그림 6〉 참조).

-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위 이내 건설업체의 경우 ‘ESG 경영이 시기상조’, ‘건설업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뽑음. 반면, 51~100위 이내 건설업체는 ‘건설업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현재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 불필요’를 주된 이유로 뽑음.

〈그림 6〉 건설업 ESG 경영 불필요성 이유(불필요하다 응답한 경우)

(단위 : %)



주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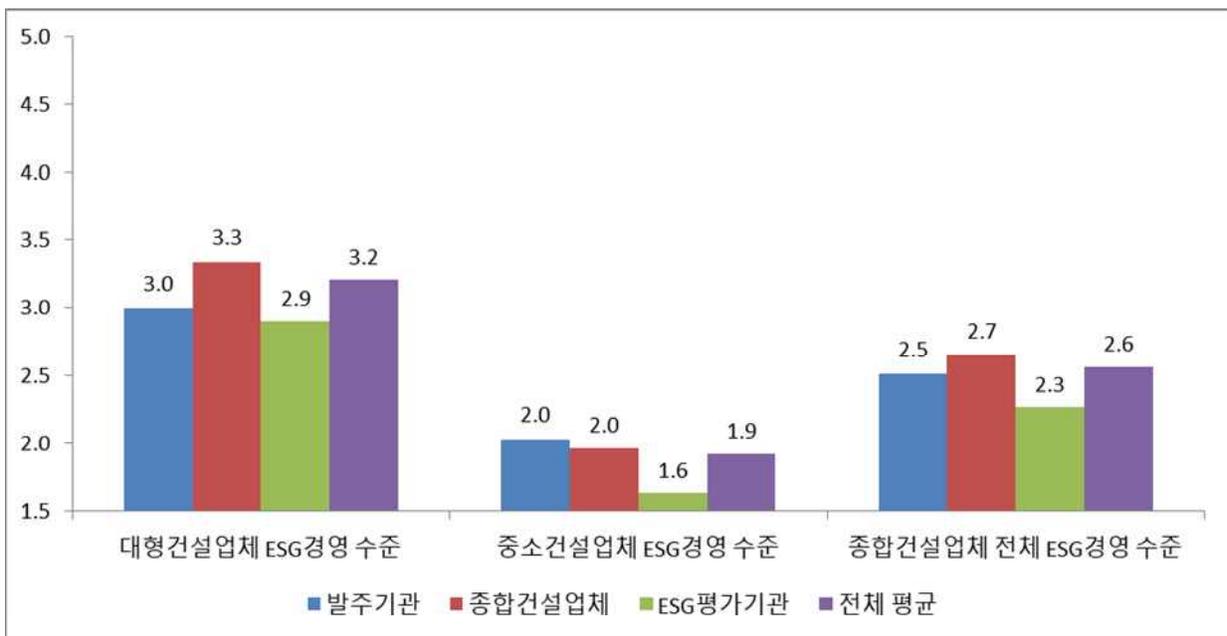
(3) 현재 건설업 ESG 경영 수준 및 추진 시 애로사항

■ 현재 건설업체 ESG 경영 수준은 평균 2.6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됨.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는 평균 3.2점(5점 만점), 중소기업체는 평균 1.9점(5점 만점)인 것으로 평가됨. 대형건설업체보다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경우 ESG 경영 수준이 보통(5점 만점에 3점 기준) 이하 즉,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부 ESG평가기관의 건설업에 대한 평가가 건설업 종사자(발주기관 및 건설업체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발주기관과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의 ESG 경영 수준을 '보통(평균 3점대) 수준'이라고 평가한 반면, ESG평가기관은 평균 2.9점으로 '보통 이하'로 평가함.
- 중소건설업체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서도 발주기관과 종합건설업체는 평균 2점(5점 만점)으로 평가한 반면, ESG평가기관은 평균 1.6점으로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그림 7〉 현재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 수준 평가(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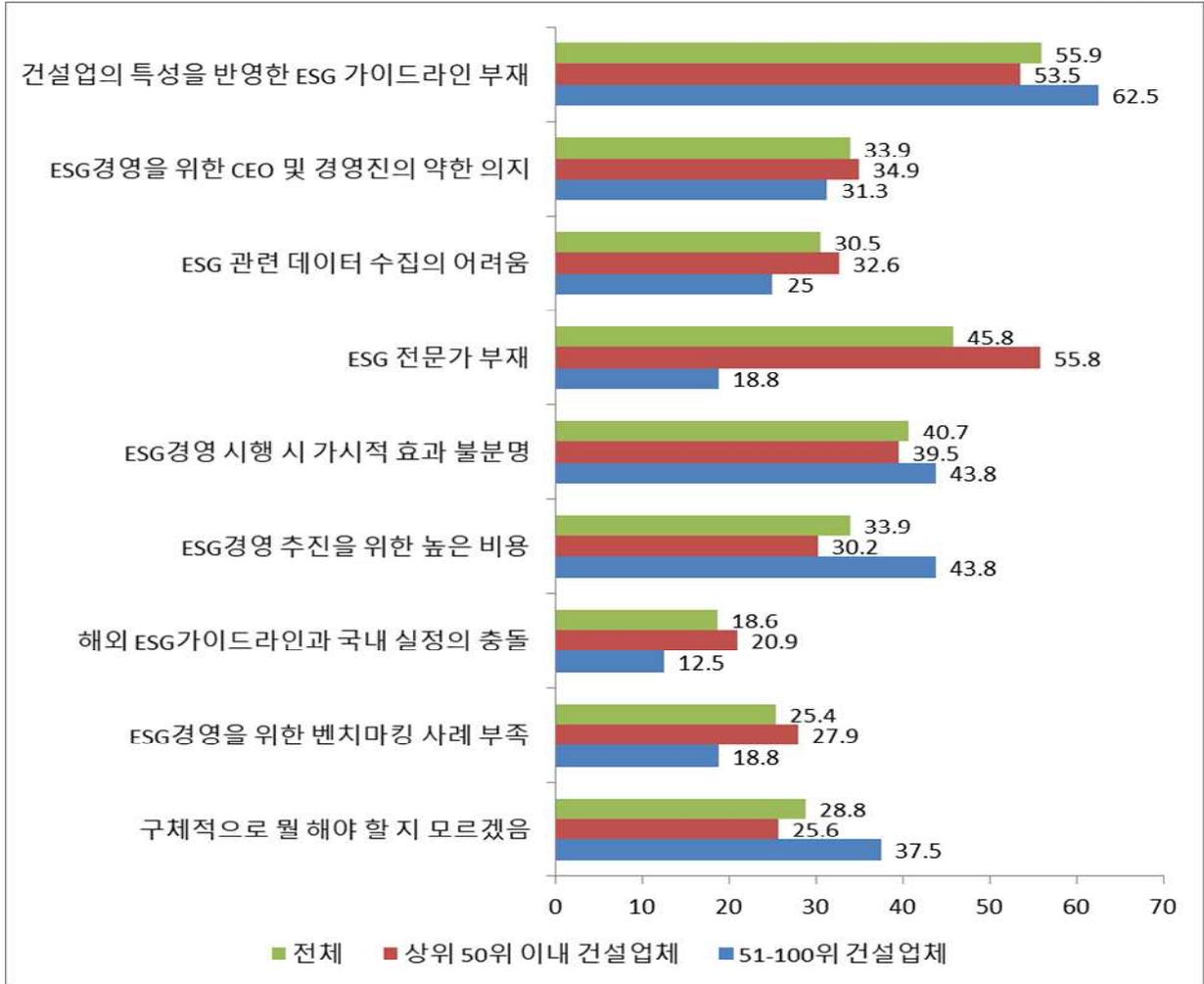


■ 건설업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부재'가 55.9%로 1순위, 'ESG 전문가 부재'가 45.8%로 2순위, 'ESG 경영 시행 시 가시적 효과 불분명'이 40.7%로 3순위로 꼽힘.

-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위 이내 건설업체의 경우 'ESG 전문가 부재', 'ESG 가이드 라인 부재', 'ESG 경영의 가시적 효과 불분명'을 주된 ESG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음. 반면, 51~100위 이내 건설업체는 'ESG 가이드라인 부재',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높은 비용',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음'을 주된 ESG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음.
-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비용'과 '실행 방안 마련' 측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건설업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

(단위 : %)



주 : 중복응답.

(4) 향후 ESG 분야별 중요성 변화 및 건설업 ESG 경영 추진 이유

- ❑ ESG의 분야별로 현재와 향후 중요성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주체별로 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현재 ESG 분야 중 1순위는 환경(Environment), 2순위는 사회(Social), 3순위는 지배구조(Governance) 순으로 나타남.
- ❑ 향후에도 ESG 분야 중 1순위는 환경(Environment), 2순위는 사회(Social), 3순위는 지배구조(Governance) 순으로 나타남. 이때, 환경과 사회에 대한 중요성 비중은 현재보다 더 증가하는 반면, 지배구조의 중요성은 현재보다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관 중 ESG평가기관의 경우 향후에는 사회 분야의 중요성을 1순위로 뽑아 다른 응답기관과 다소 차이를 보임.

〈표 5〉 ESG 분야별 중요성 변화(현재 vs 향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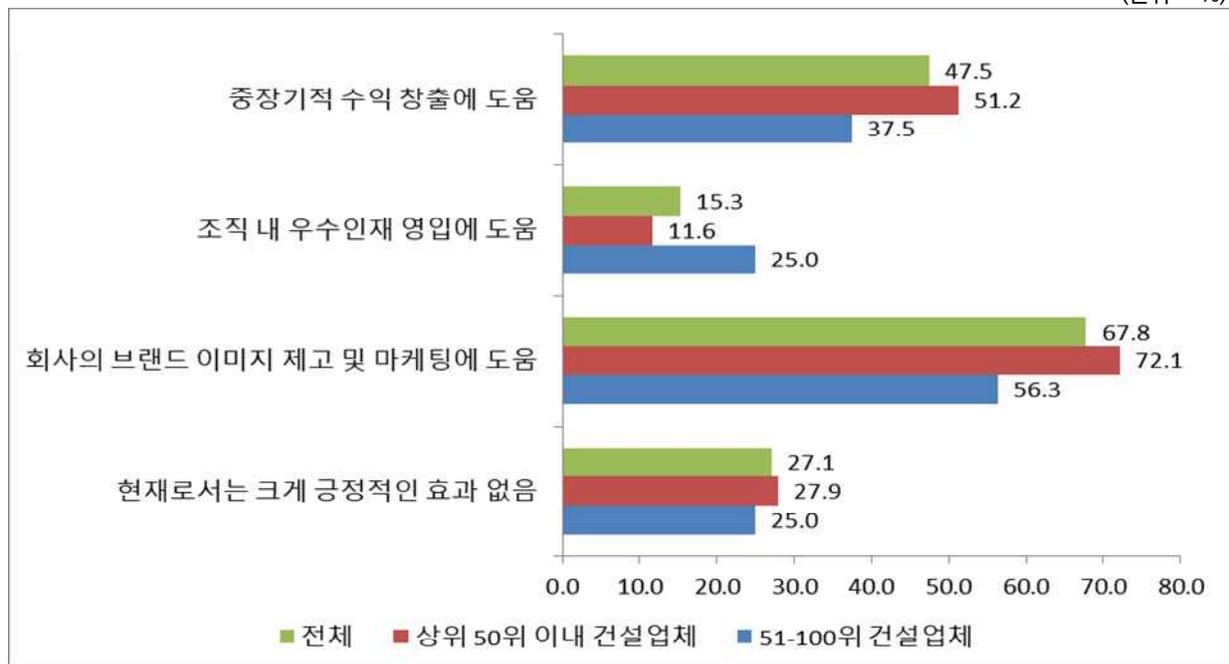
(단위 : %)

현재					⇒	향후				
분야	발주 기관	종합 건설업체	ESG 평가기관	전체		분야	발주 기관	종합 건설업체	ESG 평가기관	전체
환경	39.7	39.0	39.1	39.1		환경	42.6	46.6	35.3	43.9
사회	28.9	34.2	33.2	33.0		사회	31.9	34.3	37.5	34.4
지배 구조	31.4	26.8	27.7	27.8		지배 구조	25.5	19.1	27.2	21.7

- + 건설업 ESG 경영이 실제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에 도움’이 67.8%로 1순위, ‘중장기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47.5%로 2순위, ‘현재 크게 효과 없음’이 27.1%로 3순위를 차지함.

〈그림 9〉 건설업 ESG 경영이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단위 : %)



주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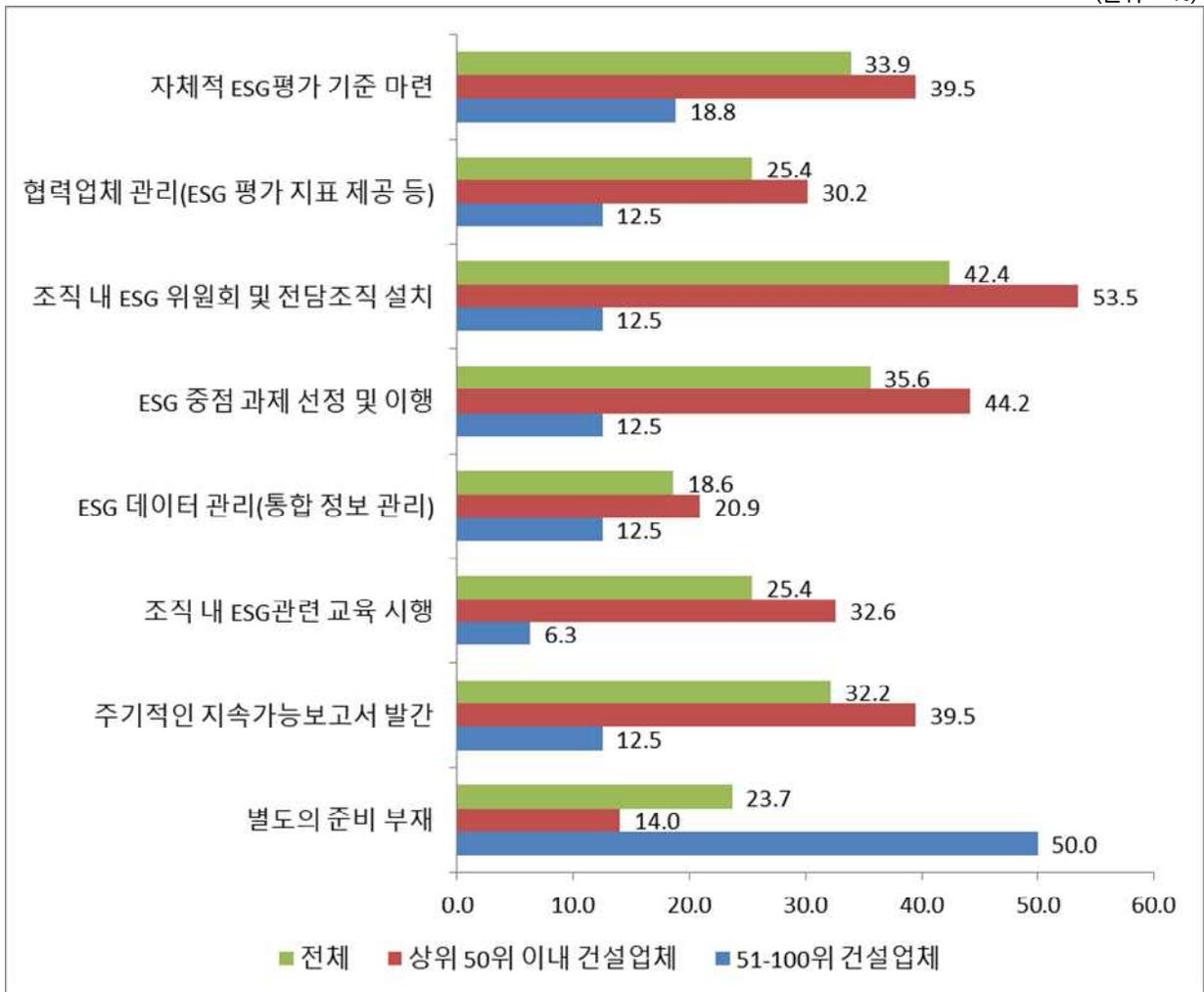
-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건설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남. 즉, 건설업체가 ESG 경영을 통해 당장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 향후 건설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해 현재 건설업체의 준비 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직 내 ESG 위원회 및 전담조직 설치’가 42.4%로 1순위, ‘ESG 중점 과제 선정 및 이행’이 35.6%로 2순위, ‘자체적 ESG 평가 기준 마련’이 33.9%로 3순위를 차지함.

〈그림 10〉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현재 건설업체 준비 사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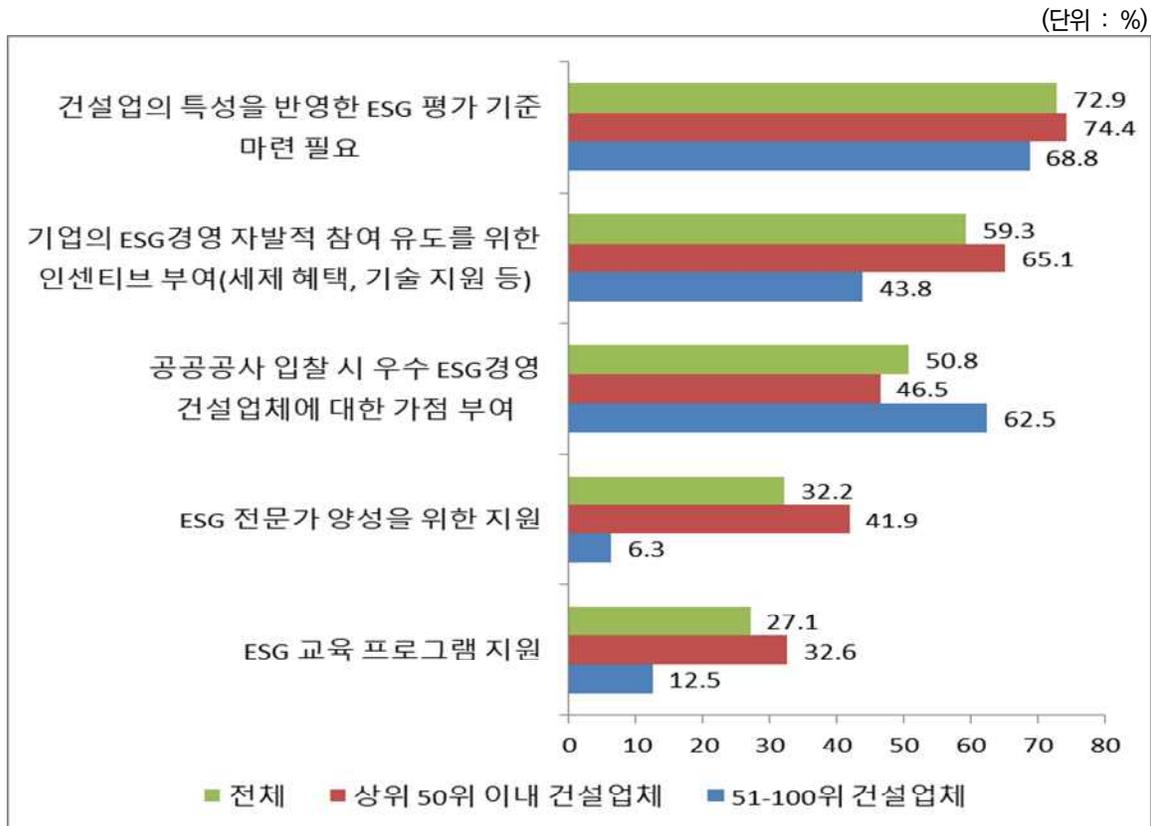
주 : 중복응답.

- 그러나 건설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위 이내 건설업체의 경우 '조직 내 ESG 위원회 및 전담조직 설치', 'ESG 중점 과제 선정 및 이행', '자체적 ESG 평가 기준 마련'을 주된 ESG 경영 대응 방안으로 뽑음. 반면, 51~100위 이내 건설업체는 '별도의 준비 부재', '자체적 ESG 평가 기준 마련'을 주된 ESG 경영 대응 방안으로 뽑아 상위 건설업체와 차이를 보임.
- 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자체적 대응 방안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 기준 마련 필요'가 72.9%로 1순위, '기업의 ESG 경영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59.3%로 2순위, '공공공사 입찰 시 우수 ESG 경영 건설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가 50.8%로 3순위로 꼽힘.

■ 즉, 건설업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11〉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주 : 중복응답.

2. 시사점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설업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함. 또한,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련된 필요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건설업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56.9%를 차지함.
- 건설업 ESG 경영이 실제 기업의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에 도움'이 67.8%를 차지함. 건설업체가 ESG 경영을 통해 당장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보다는 시대 흐름에 부응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자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건설업 ESG 경영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해 상위 5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37.5%를 차지함.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건설업체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5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별도의 준비 부재'라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차지함.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러한 응답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건설업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평가 기준 마련 필요'가 72.9%로 1순위, '기업의 ESG 경영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59.3%로 2순위, '공공공사 입찰 시 우수 ESG 경영 건설업체에 대한 가점 부여'가 50.8%로 3순위로 꼽힘.

IV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핵심 지표 도출

1. 기존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한 ESG 평가 요인 도출

앞서 제시한 ESG평가기관들의 지표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 등 거쳐 기존의 ESG 평가지표를 <표 6>과 같이 정리함.

- 본 연구는 정부가 제시한 K-ESG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평가기관들의 지표를 추가 및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함.

<표 6> K-ESG를 기반으로 추가 및 통합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ESG 평가지표

ESG 분야	지표		
환경 (Environment)	ESG 정보 공시 여부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원부자재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친환경 인증 제품		
사회(Social)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산업재해율	인권 정책 수립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전략적 사회공헌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사회 법/규제 위반
	고용 평등 및 다양성	노동 관행	공정거래
	소비자 만족 경영	품질관리	
지배구조 (Governance)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이사회 안건 처리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내부 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중대사고 위험관리
	공정공시	지속가능경영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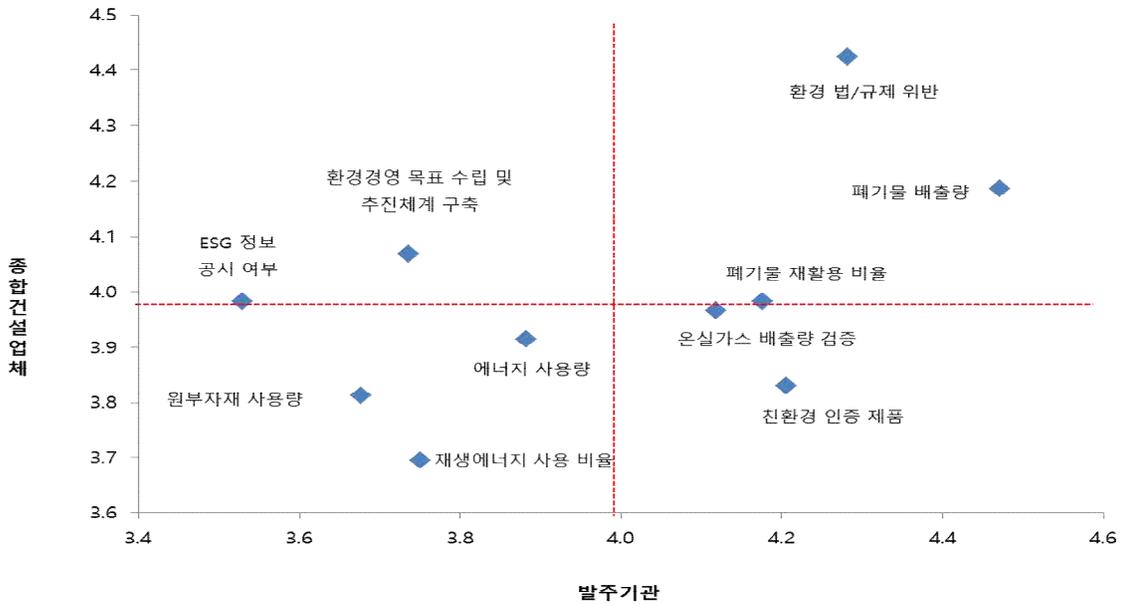
주 : ESG 정보 공시 여부의 경우 정보 공시에 해당되나 항목이 1개인 관계로 임의로 환경 지표에 삽입함.

2. 도출된 ESG 지표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중요성 평가

이해관계자(발주기관, 건설업체, ESG평가기관)를 대상으로 도출된 ESG 평가지표가 건설업에서 각각 어느 정도 중요한지 평가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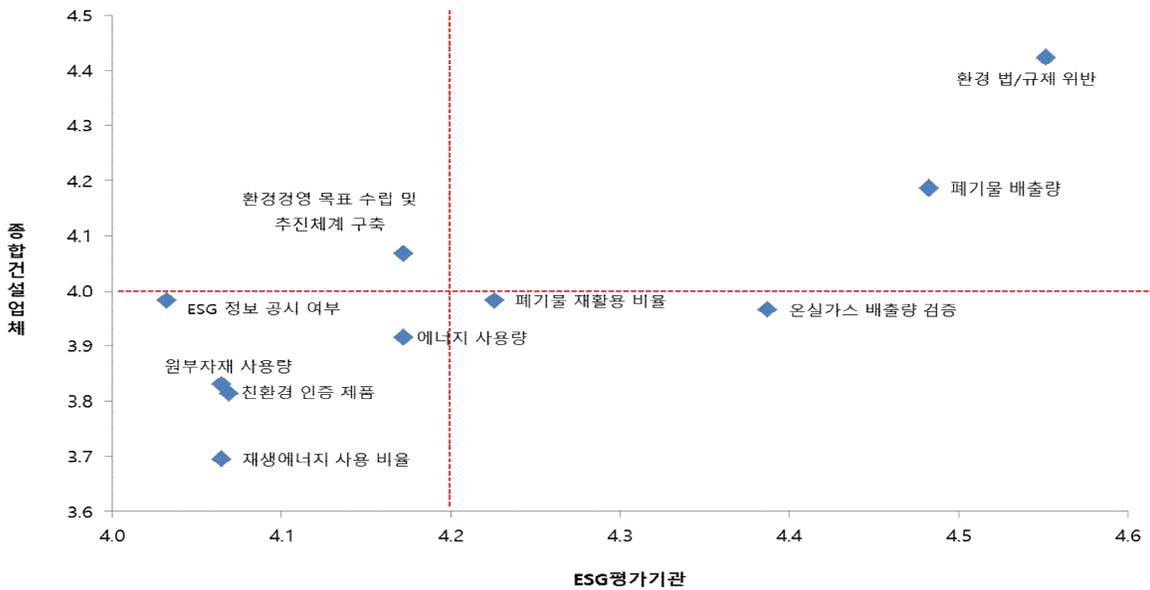
■ 먼저, 환경(Environment) 지표에 대해 건설업에서 중요성 평가를 한 결과, ‘환경 법/규제 위반’,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이 다른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남.

〈그림 12〉 건설업에서 환경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발주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환경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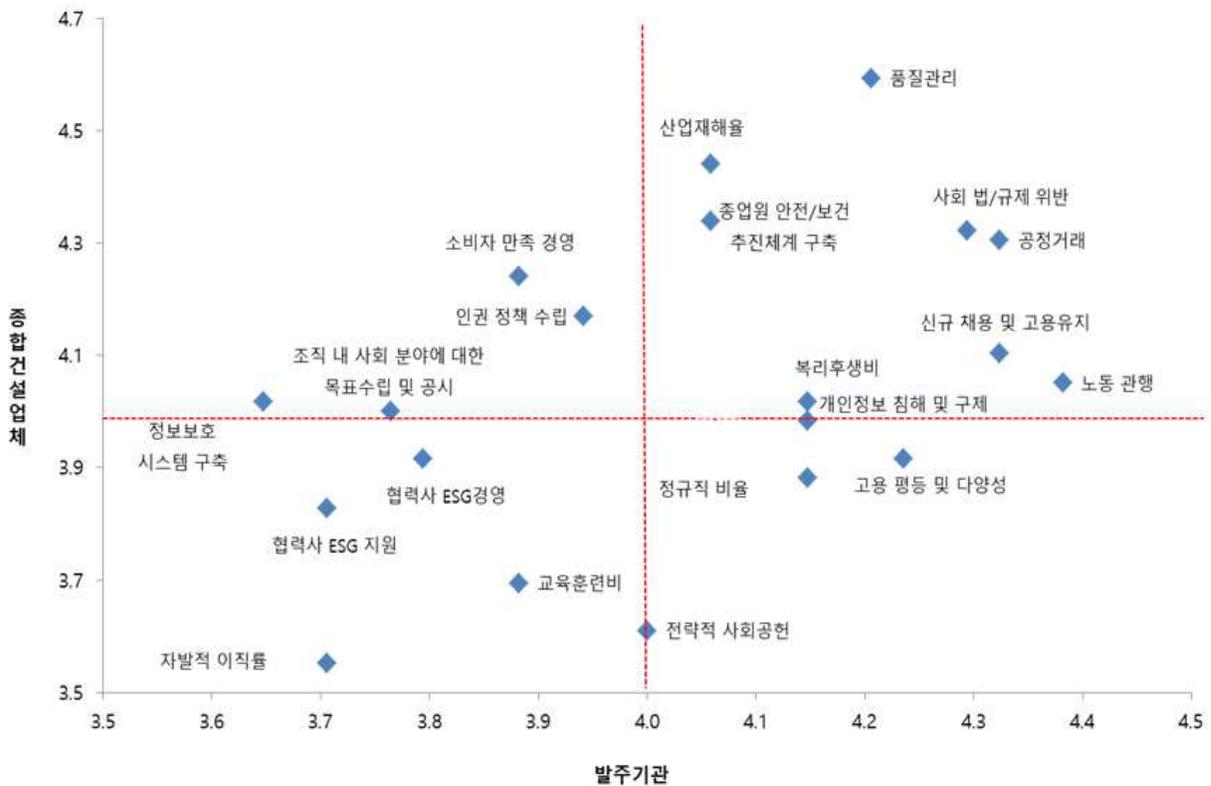
〈그림 13〉 건설업에서 환경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ESG평가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환경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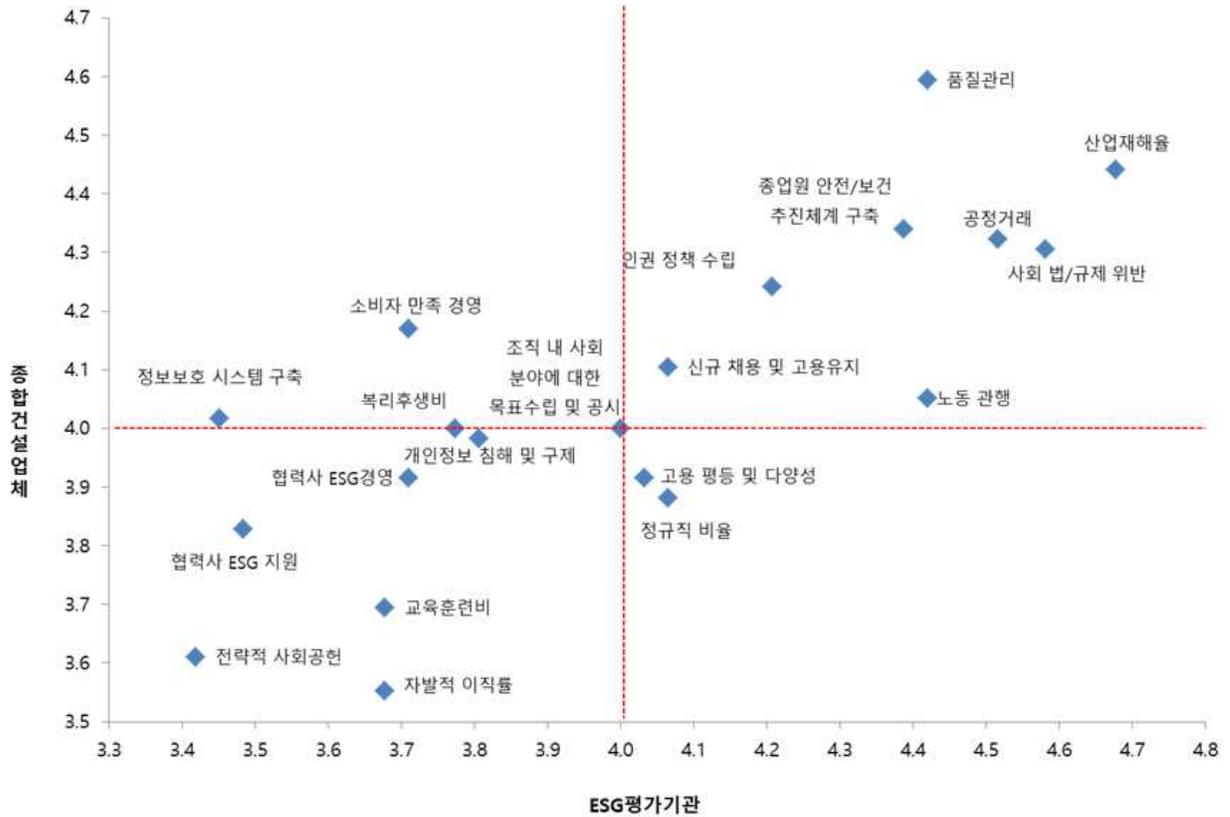
- 다음으로 사회(Social) 지표에 대해 건설업에서 중요성 평가를 한 결과, ‘품질관리’, ‘산업재해율’,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공정거래’, ‘사회법/규제 위반’,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노동 관행’,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가 다른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남.
- 특히, ‘품질관리’와 ‘산업재해율’은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과 ‘부실시공’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요 지표로 부각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전염병의 등장으로 ‘종업원 안전/보건’ 대한 이슈는 건설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대두됨.

〈그림 14〉 건설업에서 사회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발주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사회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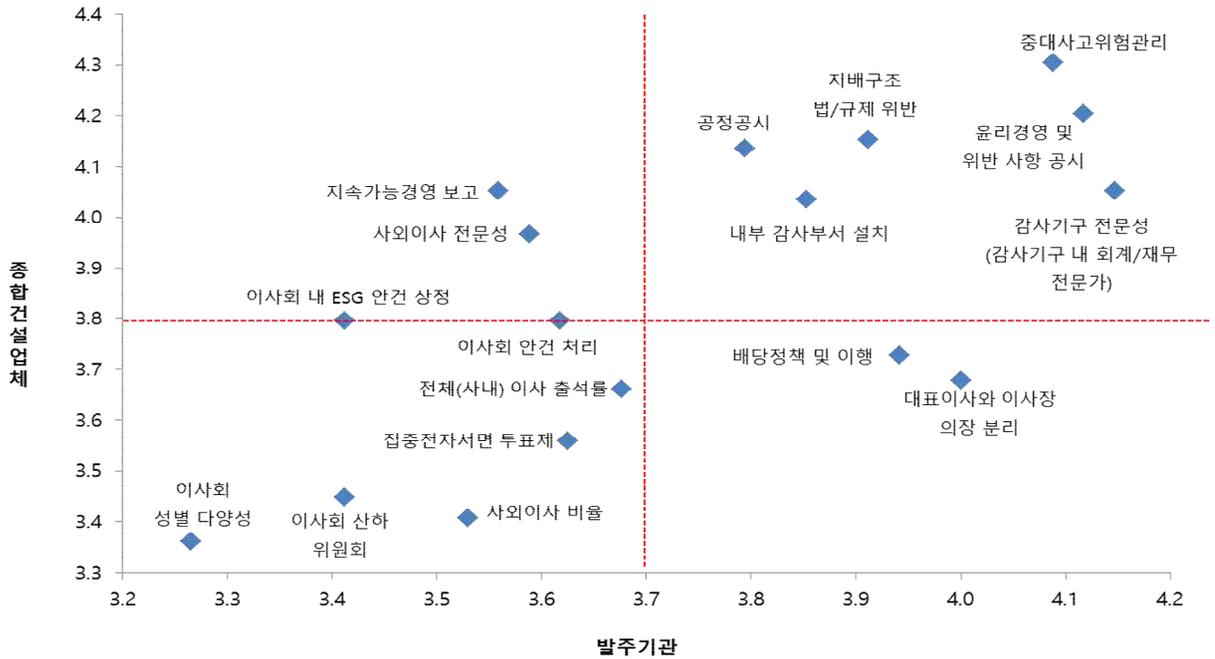
〈그림 15〉 건설업에서 사회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ESG평가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사회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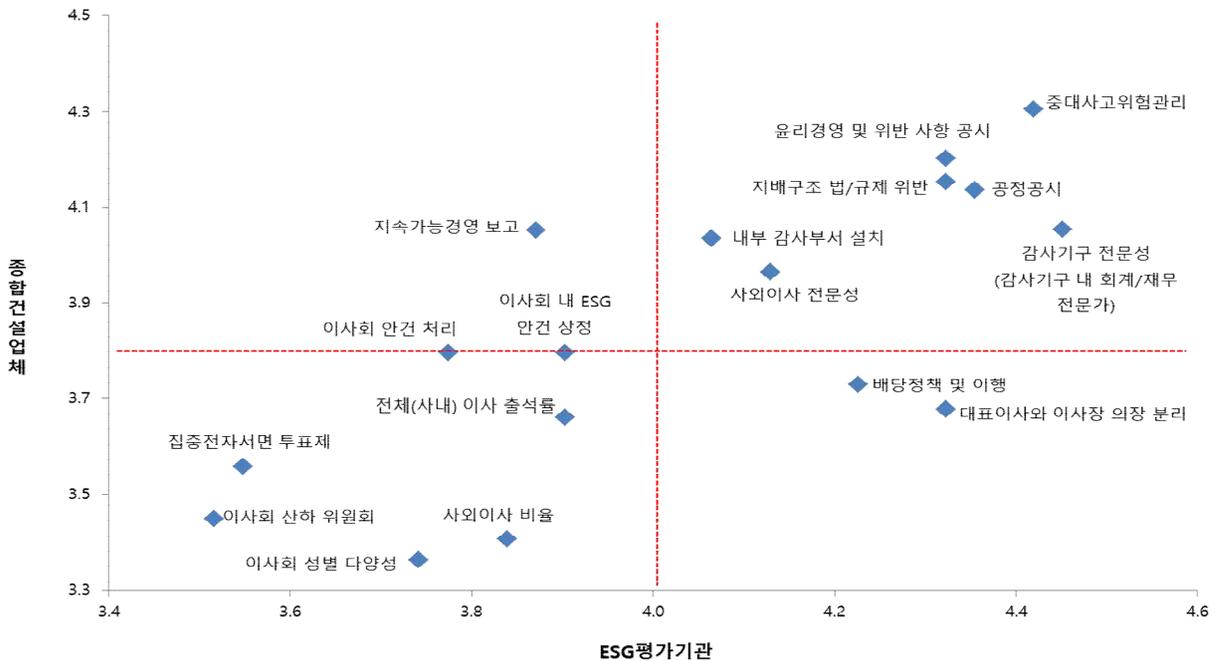
- 다음으로 지배구조(Social) 지표에 대해 건설업에서 중요성 평가를 한 결과, ‘중대사고 위험관리’,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공정 공시’,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감사 기구 설치 및 전문성’이 다른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남.
- 건설업에서 지배구조 지표 중 ‘중대사고 위험관리’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사회 분야의 ‘산업재해율’이 중요 지표로 꼽힌 것과 같은 이유로 사료됨.
- 또한, ‘윤리경영’도 중요 지표로 꼽히었는데 이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림 16〉 건설업에서 지배구조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발주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지배구조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그림 17〉 건설업에서 지배구조 분야 지표별 중요성 평가(종합건설업체-ESG평가기관)(5점 만점)



주 : 붉은 점선은 각 기관의 지배구조 분야 지표에 대한 중요성 평가의 전체 평균 점수임.

3. 도출된 ESG 지표에 대한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⁴⁾

환경 분야에 대한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 결과, ‘보통(평균 57.4점)’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준은 약 8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평균 64.8점(100점 만점)으로 중소건설업체의 5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지표별로 살펴보면,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는 환경 분야 전체 지표가 6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58.5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 중소건설업체는 환경 분야 전체 지표가 40~50점대에 그쳤는데 대형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45.5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표 7〉 환경 분야 지표에 대한 현재 규모별 건설업체 수준 평가(100점 만점)

세부 지표	대형건설업체 수준			중소건설업체 수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수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ESG 정보 공시 여부	67.9	63.5	69.5	49.2	54.1	47.5	58.6	58.8	58.5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67.3	64.1	68.8	49.2	58.8	46.4	58.3	61.5	57.6
원부자재 사용량	63.6	68.2	62.4	50.4	57.1	47.8	57.0	62.7	55.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65.9	70.6	65.1	49.0	58.2	45.5	57.5	64.4	55.3
에너지 사용량	63.3	66.9	62.8	49.6	55.9	47.8	56.5	61.4	55.3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58.5	58.8	58.0	45.5	51.2	44.1	52.0	55.0	51.1
폐기물 배출량	64.5	66.5	64.1	52.1	55.3	50.8	58.3	60.9	57.5
폐기물 재활용 비율	62.6	62.4	62.7	50.1	54.7	48.1	56.4	58.6	55.4
환경 법/규제 위반	69.5	64.1	70.7	54.7	57.1	53.9	62.1	60.6	62.3
친환경 인증 제품	64.6	61.2	65.4	50.1	55.9	47.8	57.4	58.6	56.6
· 평균	64.8	64.6	64.9	50.0	55.8	48.0	57.4	60.2	56.5

4) 건설업체 수준에 대한 평가는 건설산업의 여건 및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실시함(ESG평가 기관 제외).

❖ 사회 분야에 대한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 결과, ‘보통(평균 58.6점)’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준은 약 8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평균 66.7점(100점 만점)으로 중소건설업체의 50.4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지표별로 살펴보면,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인권 정책 수립’,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전략적 사회공헌’, ‘고용평등 및 다양성’, ‘노동 관행’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협력사 ESG 지원’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는 사회 분야 전체 지표가 6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협력사 ESG 경영’이 60.8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 중소건설업체는 사회 분야 전체 지표가 40~50점대에 그쳤는데 이 중 ‘협력사 ESG 지원’이 45.6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표 8〉 사회 분야 지표에 대한 현재 규모별 건설업체 수준 평가(100점 만점)

세부 지표	대형건설업체 수준			중소건설업체 수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수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수립 및 공시	68.2	64.7	69.5	49.6	53.5	48.1	58.9	59.1	58.8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63.9	62.5	64.4	49.4	53.5	47.5	56.7	58.0	56.0
정규직 비율	61.7	60.6	61.7	50.5	56.5	48.1	56.1	58.6	54.9
자발적 이직률	61.4	60.6	61.8	53.7	55.9	52.2	57.6	58.3	57.0
교육훈련비	67.1	67.6	66.8	48.4	54.7	45.9	57.8	61.2	56.4
복리후생비	68.7	67.1	69.2	46.5	51.2	44.4	57.6	59.2	56.8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69.5	68.2	70.2	50.5	54.1	49.2	60.0	61.2	59.7
산업재해율	66.3	62.9	67.5	55.8	58.2	54.2	61.1	60.6	60.9
인권 정책 수립	66.0	64.1	66.4	47.6	54.7	44.7	56.8	59.4	55.6
협력사 ESG 경영	60.8	57.6	61.4	47.9	51.8	46.1	54.4	54.7	53.8
협력사 ESG 지원	61.6	60.0	61.7	45.6	51.8	43.1	53.6	55.9	52.4
전략적 사회공헌	64.2	62.9	64.7	49.0	50.6	47.5	56.6	56.8	56.1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69.7	69.4	70.5	49.1	53.5	47.1	59.4	61.5	58.8

세부 지표	대형건설업체 수준			중소건설업체 수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수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65.9	62.4	67.5	52.9	59.4	50.2	59.4	60.9	58.9
사회 법/규제 위반	71.2	70.0	71.9	54.2	60.6	51.9	62.7	65.3	61.9
고용 평등 및 다양성	66.8	68.8	66.4	48.6	53.5	46.1	57.7	61.2	56.3
노동 관행	66.9	68.2	66.1	47.2	51.8	45.8	57.1	60.0	56.0
공정거래	71.7	68.8	72.5	52.1	54.1	50.8	61.9	61.5	61.7
소비자 만족 경영	70.6	68.8	71.5	53.1	56.5	52.2	61.9	62.7	61.9
품질관리	72.6	66.5	74.8	57.1	60.6	55.9	64.9	63.6	65.4
평균	66.7	65.1	67.3	50.4	54.8	48.6	58.6	60.0	58.0

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 결과, ‘보통(평균 57.9점)’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준은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배구조의 경우 환경과 사회 분야보다 중소건설업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남.

-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평균 66.6점(100점 만점)으로 중소건설업체의 49.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지표별로 살펴보면,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이 평균 이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사회 성별 다양성’은 가장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건설업체는 지배구조 분야 전체 지표가 6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60.4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 중소건설업체는 사회 분야 전체 지표가 40~50점대에 그쳤는데 대형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성별 다양성’이 44.6점으로 가장 취약하게 평가됨.

〈표 9〉 지배구조 분야 지표에 대한 현재 규모별 건설업체 수준 평가(100점 만점)

세부 지표	대형건설업체 수준			중소건설업체 수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수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전체	발주기관 평가	건설업체 평가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65.4	65.9	65.4	47.9	52.9	45.8	56.7	59.4	55.6
사외이사 비율	68.8	74.7	67.5	47.4	55.3	44.4	58.1	65.0	56.0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	63.7	70.0	61.7	46.0	54.7	42.7	54.9	62.4	52.2
이사회 성별 다양성	60.4	64.1	58.6	44.6	52.9	41.4	52.5	58.5	50.0
사외이사 전문성	65.3	71.2	63.8	48.5	55.3	46.8	56.9	63.3	55.3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65.9	68.2	65.1	49.1	53.5	47.5	57.5	60.9	56.3
이사회 산하 위원회	63.8	64.7	63.7	48.7	55.9	45.9	56.3	60.3	54.8
이사회 안건 처리	64.7	71.2	62.7	49.1	54.7	46.8	56.9	63.0	54.8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62.7	71.2	60.3	47.7	51.8	45.4	55.2	61.5	52.9
배당정책 및 이행	67.1	70.0	65.8	51.5	62.4	48.1	59.3	66.2	57.0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69.1	70.0	69.2	50.8	58.8	48.5	60.0	64.4	58.9
내부 감사부서 설치	67.8	66.5	67.8	49.4	57.1	46.8	58.6	61.8	57.3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67.8	64.1	69.2	47.2	54.1	44.7	57.5	59.1	57.0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68.7	68.2	68.8	52.9	62.9	49.7	60.8	65.6	59.3
중대사고위험관리	69.6	67.6	70.5	53.7	58.2	51.9	61.7	62.9	61.2
공정공시	70.4	68.8	71.2	52.7	57.1	50.8	61.6	63.0	61.0
지속가능경영 보고	70.4	71.2	70.5	48.8	52.4	47.1	59.6	61.8	58.8
평균	66.6	68.7	66.0	49.2	55.9	46.7	57.9	62.3	56.4

4. 도출된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간의 갭(GAP) 분석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분야별 중요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간의 갭(GAP) 분석을 실시함. 그 결과, ESG의 전 분야(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건설업체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비교해 볼 때 ESG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중 지배구조 분야는 환경, 사회 분야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표 10〉 도출된 분야별 중요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와의 갭(GAP) 분석_환경

환경 분야 세부 항목	중요 지표	건설업체 취약 지표	대형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
			취약 지표	취약 지표
ESG 정보 공시 여부				√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원부자재 사용량		√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
에너지 사용량		√	√	√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 비율		√	√	
환경 법/규제 위반	■			
친환경 인증 제품	□			
평균		57.4	64.8	50.0

- 주 : 1) ■ 는 이해관계자(건설업체, 발주기관, ESG평가기관) 모두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2) □ 는 건설업체를 제외한 발주기관과 ESG평가기관이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3) √는 취약 지표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지표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표를 대상으로 체크함.

〈표 11〉 도출된 분야별 중요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와의 갭(GAP) 분석_사회

사회 분야 세부 항목	중요 지표	건설업체 취약 지표	대형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
			취약 지표	취약 지표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공시	□	√		√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	√		√
정규직 비율	□	√	√	√
자발적 이직률		√	√	
교육훈련비		√		√
복리후생비		√		√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	√		√
산업재해율	■	√	√	√
인권 정책 수립		√	√	√
협력사 ESG 경영		√	√	√
협력사 ESG 지원		√	√	√
전략적 사회공헌	□	√	√	√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	√	√	√
사회 법/규제 위반	■			
고용 평등 및 다양성	□	√		√

사회 분야 세부 항목	중요 지표	건설업체	대형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
		취약 지표	취약 지표	취약 지표
노동 관행	■	√		√
공정거래	■			
소비자 만족 경영	□			
품질관리	■			
평균		58.6	66.7	50.4

주 : 1) ■ 는 이해관계자(건설업체, 발주기관, ESG평가기관) 모두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2) □ 는 건설업체를 제외한 발주기관과 ESG평가기관이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3) √는 취약 지표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지표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표를 대상으로 체크함.

〈표 12〉 도출된 분야별 중요 ESG 지표와 현재 건설업체 수준 평가와의 갭(GAP) 분석_지배구조

지배구조 분야 세부 항목	중요 지표	건설업체	대형건설업체	중소건설업체
		취약 지표	취약 지표	취약 지표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	√	√
사외이사 비율				√
대표이사와 이사장 의장 분리	□	√	√	√
이사회 성별 다양성		√	√	√
사외이사 전문성		√	√	√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	√	√
이사회 안건 처리		√	√	√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	√	√
배당정책 및 이행	□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	√		√
내부 감사부서 설치				√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	√		√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			
중대사고위험관리	■	√		√
공정공시	■			
지속가능경영 보고				√
평균		57.9	66.6	49.2

주 : 1) ■ 는 이해관계자(건설업체, 발주기관, ESG평가기관) 모두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2) □ 는 건설업체를 제외한 발주기관과 ESG평가기관이 건설업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평가한 지표임.

3) √는 취약 지표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지표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취약하다고 평가된 지표를 대상으로 체크함.

- 종합해 보면, 현재 건설업은 ESG의 전 분야에 있어 취약하다고 나타남. 특히, 사회, 지배구조 분야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산업 재해, 윤리경영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3〉 갭(GA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취약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하지만 취약한 ESG 지표		현재 건설업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취약한 ESG 지표	
환경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원부자재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사회	조직 내 사회 분야에 대한 목표 수립 및 공시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 정규직 비율 종업원 안전/보건 추진체계 구축 산업재해율 전략적 사회공헌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고용 평등 및 다양성 노동 관행	사회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인권 정책 수립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지배구조	윤리경영 및 위반 사항 공시 감사기구 전문성 중대사고 위험관리	지배구조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사내) 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주 : 취약한 ESG 지표는 건설업체 전체 취약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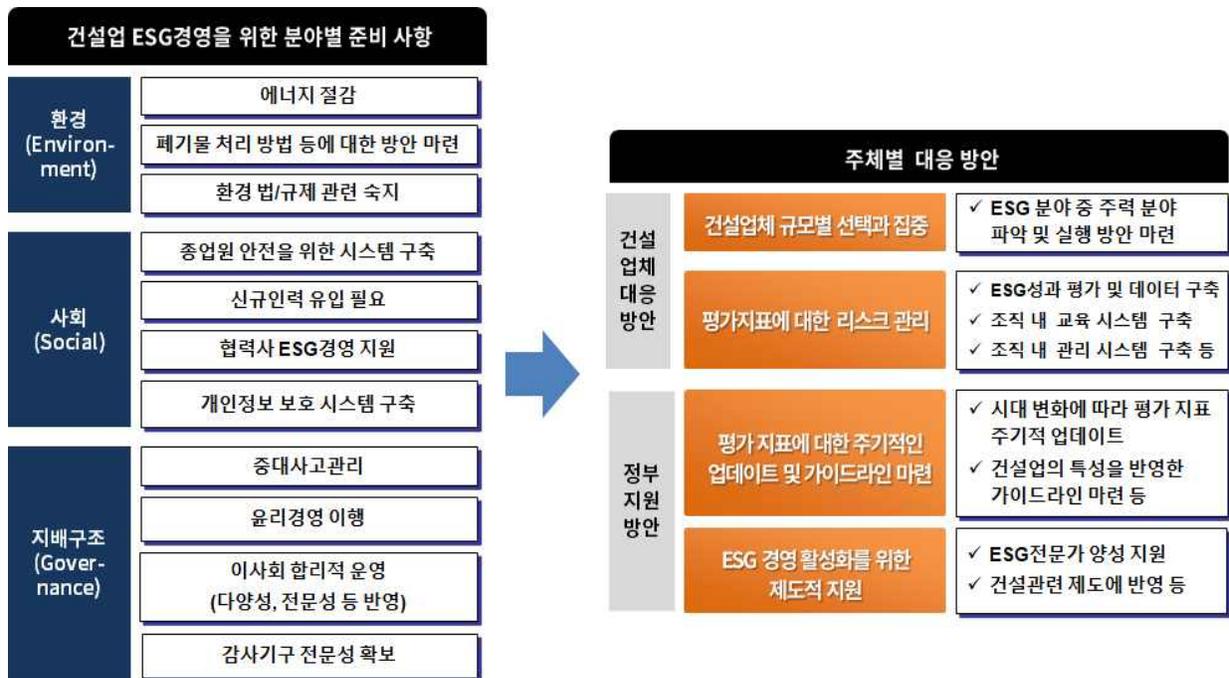
V 향후 대응 방안

1.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주체별 대응 방안

앞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준비 사항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 절감’, ‘폐기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환경 법/규제 관련 숙지’의 준비가 필요함.
- 다음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종업원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신규인력 유입 노력’, ‘협력사 ESG 경영 지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의 준비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윤리경영 이행’,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다양성, 전문성 등 반영)’, ‘감사기구 전문성 확보’의 준비가 필요함.

〈그림 18〉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준비 사항 및 향후 주체별 대응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주체별(건설업체와 정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건설업체 대응 방안

1) 건설업체 규모별 선택과 집중

■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건설업체 규모별로 ESG 경영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경영 여건이 열악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환경(E)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실제로 환경 분야의 ESG 경영은 주로 대형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 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 기술개발 지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⁵⁾
- 반면, 설문조사 결과에서처럼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별도의 준비 부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건설업체 스스로 자사의 ESG 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즉, ESG의 영역 중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해외건설 수주 등을 위해 평가기관으로부터 ESG 분야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반면, 건설업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비교해 볼 때, 평가기관으로부터 ESG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임.
- 따라서 일률적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건설업체가 개별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력할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한 후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그림 19〉 건설업체 규모별 ESG 경영을 위한 선택과 집중 프로세스



5) 최은정(2021.7),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 경영 현안 및 대응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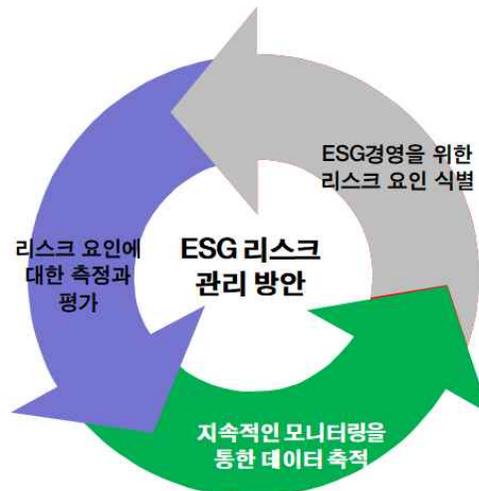
2) ESG 평가지표에 대한 리스크관리

❖ 건설업체 규모별로 ESG 평가지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함.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관리 측면에서는 종업원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협력사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 마련, 윤리경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일례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Callahan Construction은 코로나19 발생 후 종업원의 안전을 위해 카풀 금지, 100% 마스크 및 장갑 착용, 손 씻기 스테이션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작업자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였음.⁶⁾
-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건설현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교육, 윤리경영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경직적인 건설업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둘째, 관련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및 데이터 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과정은 조직 내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리스크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림 20〉 ESG 경영을 위한 리스크관리 방안



6) 손정욱(2020.5.20),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건설산업과 건설정책의 변화 방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 정부 지원 방안

1)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건설업 가이드라인 마련

- ❖ 건설업 ESG 경영을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도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해 첫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정부는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별로는 제시되고 있지 않아 향후 건설업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ESG의 구성 요인 중 건설업에서 중요 요인의 도출, 항목별 가중치의 도출, 평가 기준 및 배점 등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함.
 - 일례로 <그림 21>과 같이 MSCI의 ESG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지표와 특정 산업에서 중요한 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그림 21> MSCI의 산업별 ESG 중요 지표 예시

MSCI ESG Score									
Environment Pillar				Social Pillar				Governance Pillar	
Climate Change	Natural Capital	Pollution & Waste	Env. Opportunities	Human Capital	Product Liability	Stakeholder Opposition	Social Opportunities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Behavior
Carbon Emissions	Water Stress	Toxic Emissions & Waste	Clean Tech	Labor Management	Product Safety & Quality	Controversial Sourcing	Access to Communication	Board	Business Ethics
Product Carbon Footprint	Biodiversity & Land Use	Packaging Material & Waste	Green Building	Health & Safety	Chemical Safety	Community Relations	Access to Finance	Pay	Tax Transparency
Financing Environment Impact	Raw Material Sourcing	Electronic Waste	Renewable Energy	Human Capital Developmen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cess to Health Care	Ownership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upply Chain Labor Standards	Privacy & Data Security		Opportunities in Nutrition & Health	Accounting	
					Responsible Investment				
					Insuring Health & Demographic Risk				

● Key Issues selected for Soft Drinks Sub Industry (e.g. Coca Cola)
● Universal Key Issue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자료 : MSCI.

❖ 다음으로, ESG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함. 환경의 변화는 ESG 평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조직 내 종업원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특히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도입으로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은 건설업체에게 이전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요인을 정부는 ESG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함.

2) 건설업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 마지막으로, 건설업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이를 위해 먼저, ESG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건설업체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ESG 전문가 육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 육성 정책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건설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ESG 구성 요인별로 개별 회사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함.

❖ 한편,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정책 제도에의 반영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즉,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건설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ESG 구성 요인 중 건설업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ex. 안전 등)와 관련하여 우수 실적을 보유한 건설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맺음말

- 코로나19(Covid-19) 이후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全)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건설업도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임.

 - ESG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업은 일부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K-ESG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중요도 분석을 통해 ① 향후 정부의 건설업체에 맞는 ESG 지표 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② 건설업체의 ESG 경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단, 본 연구의 목적은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항목별 점수 기준, 항목별 평가 기준, 항목 해설서, ESG 등급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하지 않음.

- 향후에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ESG 평가지표의 제시 및 업데이트,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종합해 보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 건설업체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ESG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작업, ESG 분야별 모범 사례(best practice) 발굴, 교육 지원 등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환경(E)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건설업체 스스로 자사의 ESG 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즉, ESG의 영역 중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위상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최은정(연구위원·kciel21@cerik.re.kr)